

전남여상 졸업생 개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성과’

교육부 5년 연속 ‘우수’... 1억1000만원 확보

전국 17개 거점학교 중 전라권 상업계열 유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가 교육부 주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학교 중 5년 연속 우수학교에 선정된 학교는 전남여상이 유일하다.

6일 전남여상에 따르면 17개 거점학교 중 상위 3개교인 ‘우수 학교’에 선정되면 10%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전남여상은 올해 추가 예산 포함 총 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취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데 전남여상은 전라권의 상업계열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매년 1억원씩 3년간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해 총 5년 동안 5억원을 지원한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상)가 교육부 주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취업진로부 김과형 교사는 “졸업생 개인의 역량과 희망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사업 실무자로서의 보람을 한층 더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교 교장은 “재학 중은 물론 졸업 이후까지 학생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학교다”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든 교직원이 끝까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여상은 졸업생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졸업생을

지원하고 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특강, 자격증 특강,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특강, 면접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사업으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졸업생 강사 초청 면접지도를 실시하고 정장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 우수한 취업처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함평 풍년당, 복지시설 등 유제품 3400개 기부

함평군은 최근 풍년당이 아동·장애인복지 시설에 유제품 3400개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풍년당은 2016년부터 함평군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개막과 함께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해 오고 있다. 이번 기부에서는 우유와 커피음료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상권 풍년당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풍년당의 지속적인 기부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주민과 기업, 행정이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조성한 제2대 한국섬진흥원장 취임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최선”

제2대 한국섬진흥원장에 조성한 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사진)이 취임했다.

6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사 1층 한섬원아카데미실에서 조성한 신임 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 직원이 참석해 조 신임 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섬 진흥원 새로운 시작에 맞춰 모두가 함께 소통, 마음을 다졌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과 지역금융지원과장,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 지역균형발전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지역경제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조 원장은 한국섬진흥원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과 과장으로 역임하며 섬진흥원 설립 준비와 국내 섬 발전 촉진 및 유인섬 정책·사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원장은 “현재의 한국섬진흥원이 있기까지 다 함께 힘을 모아준 임직원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섬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신안·완도 섬 주민에 생수 전달

농협재단 후원...1039만원 상당 4만1000ℓ 지원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신안, 완도군 섬 지역 고령주민들에게 생수 4만1000ℓ(1039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생수 전달식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김경철 도초농협 조합장, 최승영 비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생수는 관내 농협을 통해 완도군 노하읍, 소안면, 청산면 및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 등 5개 읍면 주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생수 지원사업은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도서지역의 고령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도서지역 고령주민들에게 소중한 생수지원을 해준 농협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농협재단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이상기후·병해충 확산 대응·기술지원 협력

전남농기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영농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와 도내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 지역의 영농현황과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협의회에서는 시군별 당면 영농현황, 도-시군 연구 협력방안, 농업기술원 협조사항, 2025국제농업박람회 협조 요청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토마토뿌리나방, 과수화상병, 왕우렁이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찰과 신속한 방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농업기술원과 시군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확산 등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PEOPLE

2025년 5월 7일 수요일



화순읍 이십곡1리 노경배 이장

다문화가정에 300만원 기탁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이십곡1리 이장 노경배씨가 화순군 다문화가정을 위해 현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노경배 이장은 고려의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이십곡1리의 2025년 신임 이장으로 선출돼 마을을 위해 적극 봉사하며 이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노경배 이장은 올해 1월부터 이십곡1리 경로당 물품, 마을 주민 12명 생계비, 화순읍 저소득 주민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주 주택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정에 세탁기를 비롯한 12세대에 물품·생계비 지원 등 올해만 네 번째 기부를 달성했다.

노경배 이장은 “함께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나 혼자 편하게 살기 보다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는 게 더욱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참된 의미를 찾아주신 노경배 이장께 감사하다”며 “행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군민이 행복하도록 화순군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광주보건환경연

경로당 등 실내환경 무료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사회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실내공기질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라돈 등을 측정해 실내공기질을 확인하며, 올해는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검사 때 환기·살균·소독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며, 라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대상 시설은 광주 시·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했다.

정원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

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

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

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

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

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

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

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

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0일)

48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60년생 정도에 넘치는 금전은 무리
72년생 움직일 보다는 가만히 있으라
84년생 일로 인해 갈피를 못 잡는다
96년생 시기 당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

51년생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것
63년생 보안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75년생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87년생 급한 일도 차분하게 진행하라
99년생 이상의 유혹을 뿌리치라

54년생 뒤에서 모략하니 행동 주의하라
66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라
78년생 바빠 서두르면 손해 본다
90년생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57년생 다들 일이 있어도 참게 생각
69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81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니 애를 먹는 날
93년생 동료의 도움을 적극 수용하라

49년생 명예만 앞세우면 낭패
61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라
73년생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중하라
85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97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될 것

52년생 몸은 고달프고 스트레스 쌓이는 날
64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후회하게 된다
76년생 헛소문에 속아 기뻐할수도 있다
88년생 필연적이라면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55년생 이익보다는 주위를 먼저 생각하라
67년생 생각에 따라서 원천히 달라진다
79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
91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58년생 자녀로 인하여 부부 갈등 오는 날
70년생 상의하여 다음 기회를 기억하라
82년생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긴다
94년생 뒷사람과 상의하는것이 이득

50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 덮는 격
6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74년생 금전관계로 지인과 다툼 수도 있다
86년생 뜻밖의 재물이 생긴다
98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한다

53년생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65년생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착수하라
77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89년생 경쟁자가 생기지만 승리한다

56년생 안전성 있는 일에만 손을 대라
68년생 적자가 아니라 다행으로 생각하라
80년생 우연히 듣는 이가 있어 해결된다
92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59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거라는 성사
71년생 잘해주고 역올한 일이 생기는 날
83년생 현상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라
95년생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59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거라는 성사
71년생 잘해주고 역올한 일이 생기는 날
83년생 현상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라
95년생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